
2020. 6월 국제 곡물 시장 동향

2020. 6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 급 관 리 처

목 차

I. 2020/21 국제곡물 수급 동향	1
II. 국제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2
▣ 쌀	2
▣ 밀	4
▣ 옥수수	6
▣ 대두	8
III. 국제곡물시장 대외여건	10
▣ 국제 원자재시장	10
▣ 국제 석유시장	13
▣ 세계 경제 및 환율	15
▣ 주요국 기상 동향	17
[참고1] 세계 주요 곡물 생산량 및 생산 전망	20
[참고2] 국제 곡물 가격 동향(USDA 고시가격)	21

'20. 6월 국제 곡물 시장동향 [요약]

□ 세계 곡물 수급 전망(USDA)

- 20/21년도 전월대비 생산량 0.3% 증가, 기말재고율 0.1%p 증가. 품목별 생산량은 전년대비 밀 0.6%, 옥수수 0.1% 증가, 쌀·대두는 전월 수준 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곡물 전체	쌀	밀	옥수수	대두
생산량	2,760.13	502.09	773.43	1,188.48	362.85
기말재고량	872.53	185.35	316.09	337.87	96.34
기말재고율	32.2%	37.2%	42.0%	29.0%	26.6%

□ 품목별 가격 동향

- 쌀(미국산 중립종) : 캘리포니아 중립종 가격은 거래 없이 전월 수준 유지
- 쌀(태국산 장립종) : 가뭄에 따른 공급 우려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요 감소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에 그침
- 밀 : 세계 생산량·기말재고량 증가 전망에 6월 초중반 하락하였으나, 6월 말 USDA 미국 파종면적이 크게 하향조정되며 선물가격 반등
- 옥수수 : 세계 공급 우위와 양호한 기상 전망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USDA 미국 파종면적 발표 이후 대규모 펀드 환매수가 일어나며 반등
- 대두 :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세와 달러화의 완만한 약세 흐름속에 저가 매수세와 중국의 미국산 대두 매입 소식에 반등세

□ 국제곡물시장 대외여건

- 원자재 : 6월 국제원자재가격은 에너지와 금속을 중심으로 반등세 지속.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뚜렷해지면 국제원자재가격은 또다시 하방압력에 직면 전망
- 석유 : OPEC+ 감산이행에 따른 공급 감소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석유수요의 부분적 회복으로 상승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상승폭 제한
- 경제 및 환율 : IMF는 6월 수정전망에서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 -4.9%로 추가 하향. 6월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초반대 유지
- 기상동향 : 2020년 7~9월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47% 수준. 2021년 봄까지도 정상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

I. 2020/21 국제곡물 수급 동향



곡물전체¹⁾

□ 곡물 전체 생산량은 전월대비 0.3% 증가한 27억 6,013만톤으로 전망

○ 전월대비 밀 0.6%, 옥수수 0.1% 증가, 쌀·대두는 전월 수준

* 품목별 수급전망 : (참고1) 세계 주요 곡물 생산량 및 생산전망 참조(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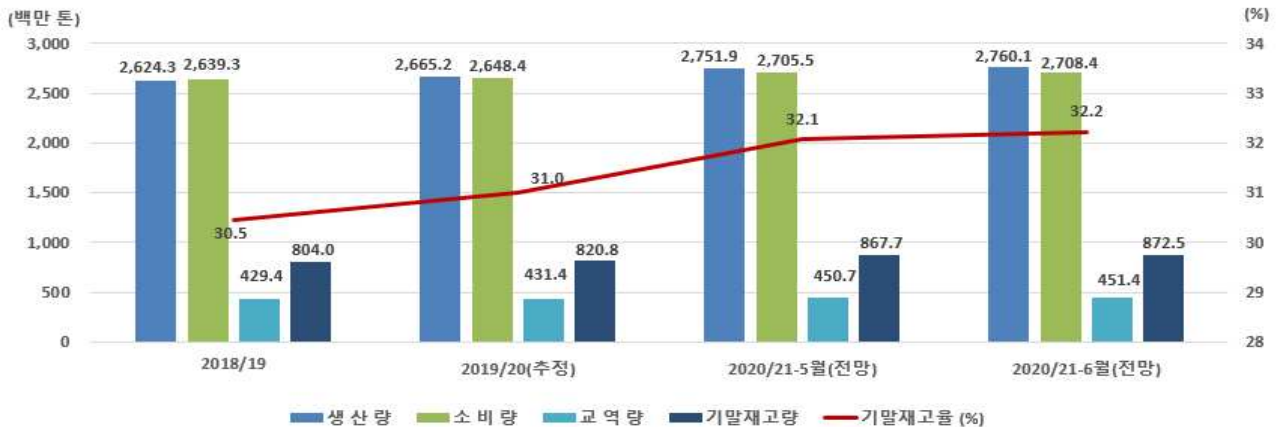
□ 곡물 전체 소비량은 전월대비 0.1% 증가한 27억 842만 톤으로 전망

□ 곡물 전체 교역량은 전월대비 0.1% 증가한 4억 5,138만 톤으로 전망

□ 곡물 전체 기말재고량은 전월대비 0.6% 증가한 8억 7,253만 톤으로 전망

○ 기말재고율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32.2% 전망

【 곡물 전체 수급 동향 및 전망 】



(단위 : 백만 톤)

구분	2018/19	2019/20(추정,A)	2020/21(전망)		대비(%)	
			5월(B)	6월(C)	전년(C/A)	전월(C/B)
생산량	2,624.29	2,665.22	2,751.89	2,760.13	3.6	0.3
공급량	3,443.26	3,469.23	3,573.24	3,580.95	3.2	0.2
소비량	2,639.25	2,648.41	2,705.50	2,708.42	2.3	0.1
교역량	429.39	431.39	450.74	451.38	4.6	0.1
기말재고량	804.01	820.82	867.74	872.53	6.3	0.6
재고율(%)	30.5%	31.0%	32.1%	32.2%	1.2%p	0.1%p

※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20.6)

1) 밀, 쌀, 잡곡(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등)

II. 국제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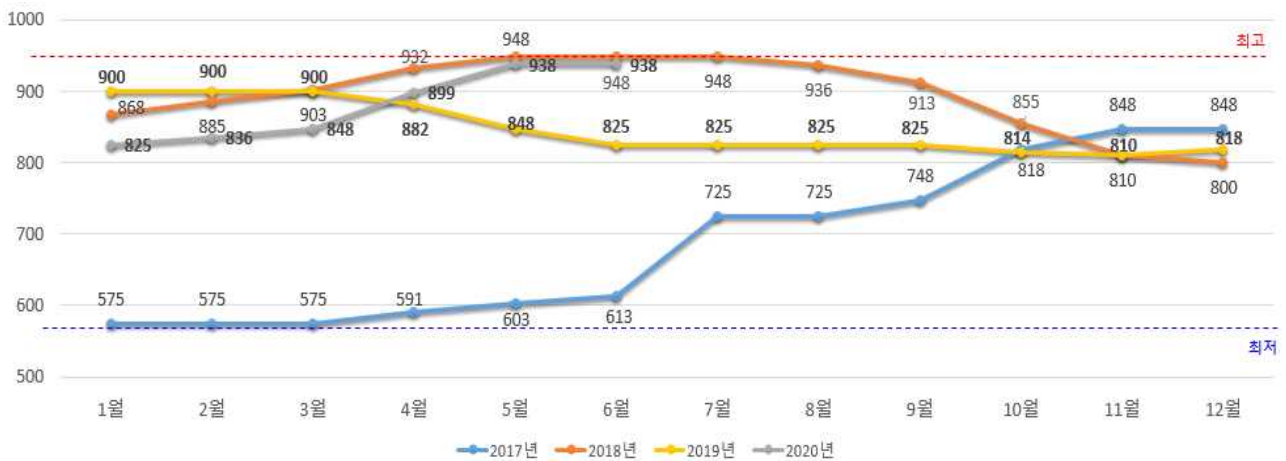
쌀

□ 동향 및 전망

- 중립종(미국) : 캘리포니아 쌀 가격은 거래 없이 전월 수준으로 형성
 - 사재기 열풍으로 내수 시장 수요가 급증했던 3~4월과 달리 최근 외식 업계 중심으로 수요가 급감하였음
 - 캘리포니아 중·단립종 파종면적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49만 5천 에이커이며, 전체면적 중 중립종의 비율은 전년대비 6%p 감소한 23%

지역	파종면적(Area planted)			
	합계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
캘리포니아	507,000	45,000	450,000	12,000

- 향후 가격은 신곡 생산량 증가로 신곡 출하 시 **하향 안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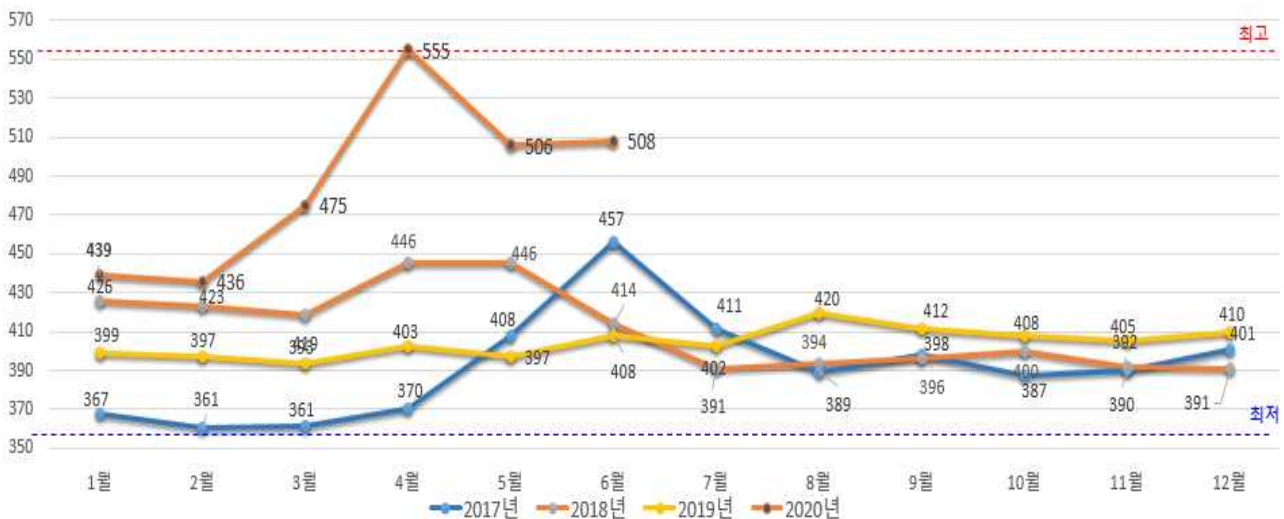
(단위 : US\$/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16	790	790	790	719	685	650	650	622	618	621	618	597	679
'17	575	575	575	591	603	613	725	725	748	818	848	848	687
'18	868	885	903	932	948	948	948	936	913	855	810	800	896
'19	900	900	900	882	848	825	825	825	825	814	810	818	848
'20	825	836	848	899	938	938							881

※ 자료 : USDA Rice Outlook '20.6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US No.1(4% 파쇄립 sacked 20kg FOB 기준)

○ 장립종 (태국)

- 가뭄에 따른 빠듯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 및 관광객 입국 금지로 인한 내수 수요 감소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에 그침(0.4%↑)
-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점포와 음식점은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로 쌀 내수 수요 회복은 제한되고 있음
 - * 7.1일부로 일부 외국인 입국 허용(기업인·투자자·숙련노동자·교사·학생·의료관광객 등 약 5만명)
 - * 태국 관광협회는 2020년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80% 급감한 최대 800만명으로 추정
- 태국 상무부에 의하면 5월 쌀 수출량은 46만톤으로 전월 대비 28% 감소 하였으며, 1~5월 누적 수출량은 257만 톤으로 전년대비 32% 감소
 - * 주요 5월 수출 대상국 : 미국(7.1만톤), 남아공(3.9), 앙골라(3.7) 등
- 태국정부는 쌀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 시 보상해주는 계획을 발표
 - * 시행시기 : '20.9월~'21.5월 / 예산 : 27억 5천만 달러 / 기준가격 : 미정
- 신곡 출하를 앞두고 재고 처분을 위한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전망



(단위 : US\$/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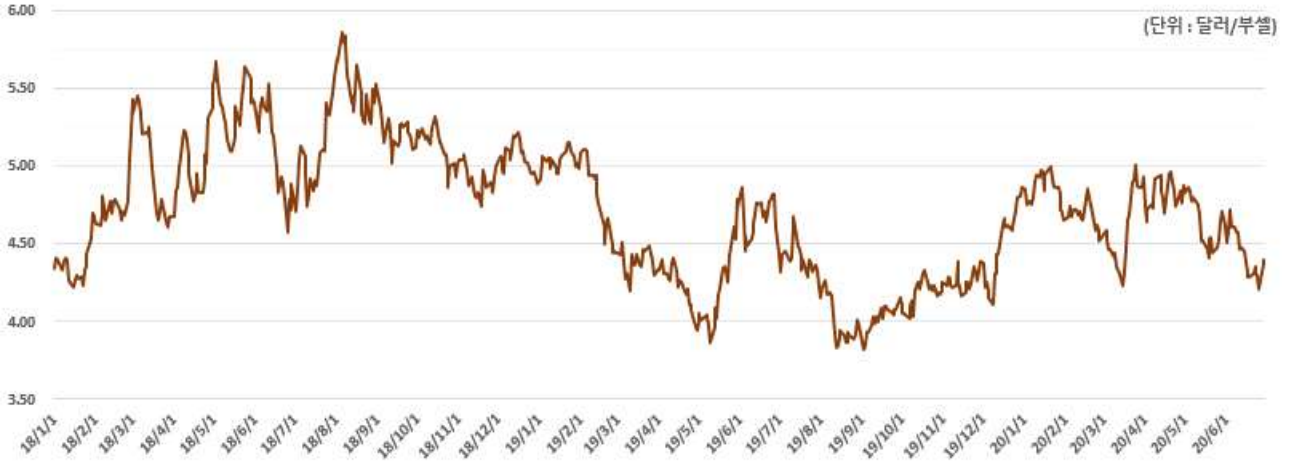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16	370	379	380	388	420	428	430	401	379	361	355	366	388
'17	367	361	361	370	408	457	411	389	398	387	390	401	392
'18	426	423	419	446	445	414	391	394	396	400	392	391	411
'19	399	397	393	403	397	408	402	420	412	408	405	410	405
'20	439	436	475	555	506	508							487

※ 자료 : Creed Rice (백미 100% B등급, FOB 기준) / 월 평균 가격



밀

[밀 월별 선물가격]



(단위 : 달러/부셀)

(단위 : US\$/톤)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평균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87	270	245	190	160	163	185	161	161	170	148	166	179	171	169	176	170	163

※ 자료 : USDA 고시 KCBT No.2 경질밀(Hard Red Winter Wheat) / 월별 평균가격

□ 동향

- 밀 선물가격은 글로벌 수확량과 기말재고량 증가 전망에 6월 초중반 하락하였으나, 6월 말 USDA 분기보고서로 미국산 곡물 전반의 파종 면적이 크게 하향조정되면서 선물가격 반등
 - 미 농무성(USDA)은 미국 밀 파종면적을 44.25백만 에이커로 하향 조정
 - * 시장 전망치 : 44.718백만 에이커 / 3월 보고서 : 44.655백만 에이커
 - 상대적으로 옥수수가 큰 폭으로 조정되며, 곡물 전반 동반 상승세
- 달러화 하락으로 미국산 밀의 경쟁력은 양호한 가운데, 국제곡물위원회 (IGC)는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밀 생산량을 전년대비 2백만 톤 증가한 768백만 톤으로 추정
 - 호주의 3년간의 가뭄 해소, 중국 밀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며, 유럽은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생산량이 감소 전망

- 다만 인도양·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라니냐 현상으로 폭우 피해 전망
- 미 농무성(USDA)은 6.28일 기준 봄밀 출수진도율(Headed)은 36%(전년 20%, 5년 평균 45%), 겨울밀 수확 41%(전년 26%, 5년 평균 41%), 우수 등급비율(Good to Excellent)은 봄밀 69%(전년 75%), 겨울밀 52%(전년 63%)로 발표
- USDA 6월 2020년 미국 기말재고량을 925백 만 부셸, 생산량 18.77억 부셸, 생산성 49.8부셸/에이커, 수출 전망치 950백 만 부셸로 전망하였으며, 분기 재고량을 1,044백만부셸로 발표(예상치 980, 전년 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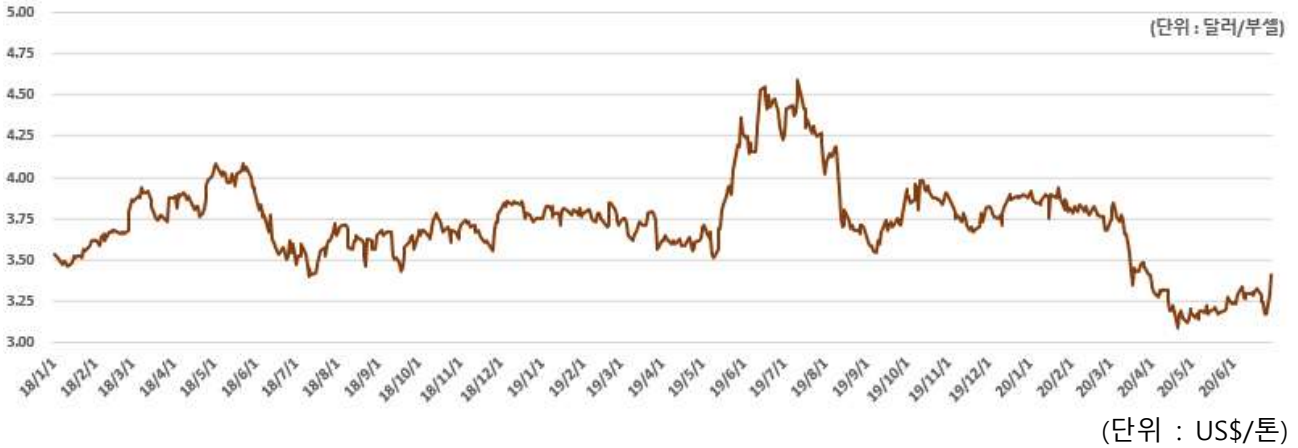
□ 전 망

- 글로벌 달러약세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미국산 밀 수요는 양호한 상황이나, 전반적인 글로벌 생산량 증가 전망에 가격은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유럽·미국의 고온건조 기상 전망에 따른 기상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



옥수수

[옥수수 월별 선물가격]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평균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72	225	164	149	141	142	146	152	146	171	145	151	152	149	141	126	126	129

※ 자료 : USDA 고시 CBOT No.2 Yellow corn / 월별 평균가격

동향

- 6월 옥수수 선물가격은 글로벌 공급 우위와 양호한 기상 전망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월말 USDA 분기보고서 발표를 전후로 대규모 펀드들의 환매수(Short Covering)가 일어나며 반등
 - 미 농무성(USDA)은 미국 옥수수 파종면적을 92백만 에이커로 하향 조정
 - * 시장 전망치 : 95.207백만 에이커 / 3월 보고서 : 97백만 에이커
 - 6월은 대체로 양호한 기상으로 작황에 도움이 되었으나, 7월 폴리네이션 시기(Pollination Period, 수분철)를 앞두고 향후 3~4주간 고온건조기상이 예보되면서 작황에 대한 우려감 존재
 - 미 농무성(USDA)은 6.28일 기준 옥수수 출사율(Silking)은 4%(전년 2%, 5년 평균 7%), 우수등급비율(Good to Excellent)은 73%(전년 56%)로 발표
 - USDA는 6월 미국산 재고량을 3,323백 만 부셸, 생산량 159.95억 부셸, 생산성 178.5부셸/에이커, 수출전망치 2,150백 만 부셸로 전망하였으며 파종면적이 하향조정되면서 7월 기말재고량 또한 큰 폭 조정 전망

○ 6월 옥수수 수출가격(사료용)은 국제유가 회복·선임 상승·콘벨트 지역 건조한 기상으로 전월대비 상승

- 6월 18일 현재 미국 옥수수 수출가격은 CFR 기준 톤당 198불 전월대비 7% 상승하였음

(단위 : US\$/톤)

품 목		6월 18일 현재 (A)	전월평균 (B)	전년동월 (C)	가격변동률(%)	
					A/B	A/C
옥 수 수 (미 국 산)	FOB	162	150	199	108	81
	CNF	198	185	242	107	82

※ 자료 : 한국사료협회

□ 전 망

○ 옥수수 가격은 7월 플레이이션 단계로 접어들며 기상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

- 파종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생산성 마저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면 큰 폭의 가격 반등 가능성

- 향후 3~4주간 미국 주산지에 고온건조 기상이 예보되고 있어 기상조건 주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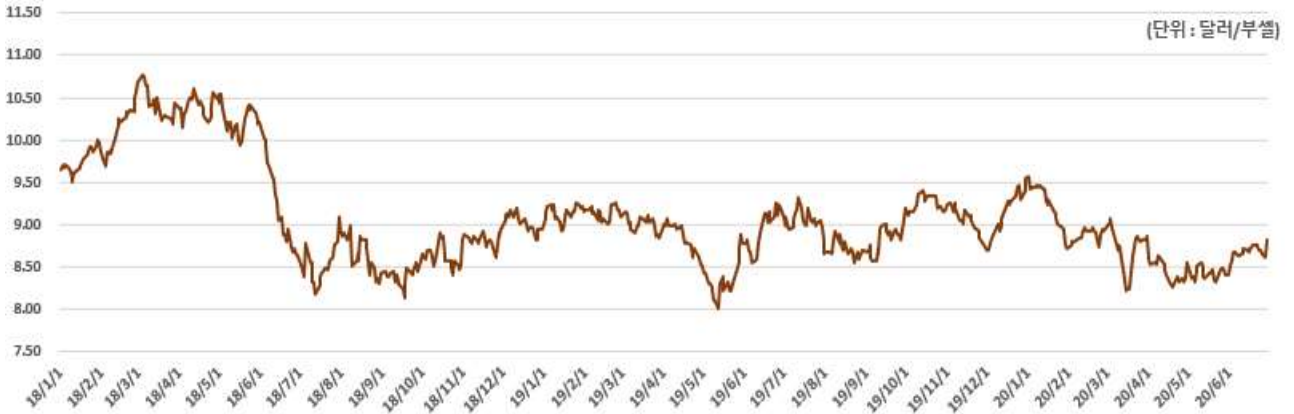
○ 국제유가 회복 및 미국 콘벨트 지역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분위기 전망

- 향후 에탄올 소비 증가 여부가 중요한 가격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콘벨트의 기상 여건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Weather Condition Market이 전개될 것으로 보임



대두

[대두 월별 선물가격]



(단위 : US\$/톤)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평균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37	511	453	347	362	360	343	328	331	327	325	335	339	325	320	310	310	319

※ 자료 : USDA 고시 CBOT No.2 Yellow Soybean / 월별 평균가격

□ 동향

○ 대두 선물가격은 6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세와 달러화의 완만한 약세 흐름속에 저가 매수세와 중국의 미국산 대두 매입 소식에 반등세

- 미 농무성(USDA)은 미국 대두 파종면적을 83.825백만 에이커로 하향 조정
* 시장 전망치 : 84.716백만 에이커 / 3월 보고서 : 83.510백만 에이커
- 또한 수출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는 있으나,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미국산 옥수수과 대두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 농무성(USDA)은 6.28일 기준 대두 새싹성장율(Emerged)을 95%(전년 80%, 5년 평균 91%), 개화비율(Blooming)은 14%(전년 2%, 5년 평균 11%), 우수등급비율(Good to Excellent)은 41%(전년 52%)로 발표
- 빠른 파종과 양호한 작황은 가격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 3~4주간 고온건조 기상 예보에 대한 우려감 상존

- USDA는 6월 미국산 재고량을 395백 만 부셀, 생산량 41.25억 부셀, 생산성 49.8부셀/에이커, 수출전망치 20.5억 부셀로 전망하였으며 파종 면적이 하향조정되면서 7월 기말재고량이 다소 감소 전망

○ 대두 수출가격(사료용)은 수요 위축과 수출 부진으로 약세였으나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소식으로 강세 전환

- 미국산 대두는 유가 상승으로 해상운임도 상승하여 6월 18일 현재 CFR 기준 톤당 387불로 전월대비 4% 상승
- 미국산 대두박 가격은 미국산 대두 구매와 파나마스급 벌크선 해상운임이 다시 회복되면서 6월 18일 현재 CFR 기준 톤당 377불로 전월대비 3% 상승

(단위 : US\$/톤)

구 분		6월 18일 현재 (A)	전월평균 (B)	전년동월 (C)	가격변동률(%)	
					A/B	A/C
대 두 (미 국 산)	FOB	356	336	348	104	101
	CFR	387	371	391	104	99
대 두 박 (미 국 산)	FOB	341	335	358	102	95
	CFR	377	370	401	102	94

※ 자료 : 한국사료협회

□ 전 망

- 향후 대두 선물가격은 7월 기상 조건이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긴장 고조,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제한적인 상승세 전망
- 대두 수출가격(사료용)은 해상운임이 소폭 상승하였고, 중국 수출 기대감으로 반등하고 있으나, 미국 대두 생산지역의 건조한 날씨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 전망

II. 국제곡물시장 대외여건



국제 원자재시장

- ▶ 6월 국제원자재가격은 에너지와 금속을 중심으로 반등세 지속
- ▶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뚜렷해지면 국제원자재가격은 또다시 강력한 하방압력에 직면

□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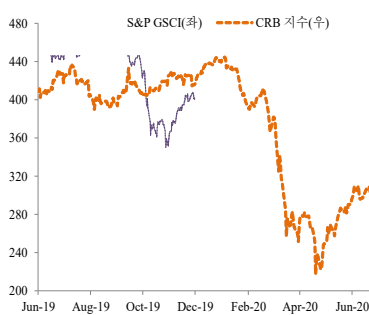
○ 6월 국제원자재가격은 에너지와 금속을 중심으로 반등 지속

- 실물경제지표가 다소 회복되고 주요국 경제 재개 및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2개월 연속 반등했으나 월말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증함에 따라 상승폭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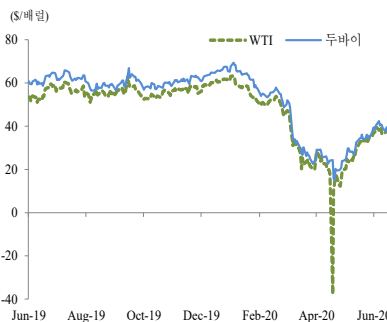
* CRB지수는 +4.3%(5월 +12.8%), S&P GSCI는 +6.0%(5월 +19.5%)

* WTI +10.7%, 브렌트유 +16.5%, 美휘발유 +17.0%, 대두 +5.2%, 원당 +8.5%, 구리 +11.9%, 알루미늄 +4.6%, 소맥 - 5.9%, 옥수수 3.9%, 쌀 - 15.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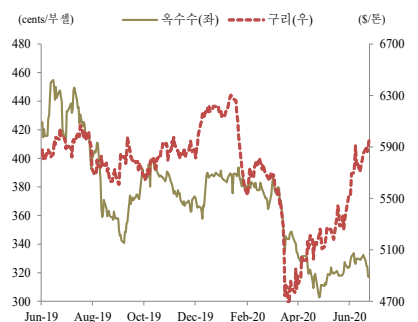
【 원자재 지수 추이 】



【 유가 추이 】



【 옥수수, 구리 가격 추이 】



□ 주요 이슈

○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50만 명을 상회. 사망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2.5만 명 이상으로, 전문가들은 봉쇄 해제가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
-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월 말 기준 1천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는 50만 명에 육박. 브라질과 인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확진자도 증가 추세

○ 코로나19 이후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점증

- 코로나19는 경제 금융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글로벌 리스크로 인식. ①자국우선주의 확산 ②디지털 소외 ③유동성 정상화 리스크 ④부채위기 ⑤위험투자 과열 ⑥남미 경제위기 ⑦사회 불평등 심화 ⑧국제사회 양분화
-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특별한 사전 징후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수습 과정에서 오히려 리스크 수위가 더욱 커지거나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해 리스크의 폭발력이 큰 것으로 평가

○ 美은행 건전성 양호하나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높아 악화 가능성 상존

- Fed는 6월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심각한 경제 하강을 가정한 민감도 분석에서도 대체로 건전한 자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부실 대출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Fed는 ▲자사주 매입 중단 ▲배당 지급 상환 ▲연내 필요자본 재평가 및 자본계획 재제출 등을 조치

○ 중국 5월 경제지표 개선. 예상치는 하회

- 5월 산업생산 +4.4%(4월 3.9%), 소매판매 -2.8%(-7.5%), 고정자산투자 -6.3% (-10.3%) 등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소비·투자도 마이너스 폭 감소
-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하회. 고용 및 서비스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

※ 주요 금융지표 동향

- * 6월 주요국 주가는 대체로 상승(~6.26일 美 다우 -1.4%, 나스닥 2.8%, 유럽 5.0%, 英 1.4%, 佛 4.6%, 獨 4.3%, 伊 5.1%, 日 2.9%, 中 4.5%, 臺 6.6%, 韓 5.2%)
- * 6월 주요국 국채금리(10년물)는 소폭 하락(美 5월말 0.65%→6.26일 0.64%, 英 0.18%→0.17%, 일본 0.00%→0.01%, 독일 -0.45%→-0.48%, 이탈리아 1.47%→1.29%)
- * 6월 달러인덱스 하락(달러인덱스 5월말 98.344→6.26일 97.433, 유로/달러 1.1101→1.1219, 달러/엔 107.83→107.22, 달러/원 1,238.35→1,200.70)

□ 전 망

- 코로나19의 재확산 단계 진입이 명확해질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은 강력한 하방압력에 직면할 가능성. 특히 선진국의 확산 여부가 관건인 만큼 관련 동향 예의주시 필요
 - 국제유가와 산업용 금속 등 경기 민감 품목은 최근 수급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향방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격은 재차 급락할 가능성
 - 주요 곡물가격은 weather market이 본격화 되겠지만 에너지 및 금속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소지



국제 석유시장

- ▶ 5월 초 배럴당 24.3 불을 기록한 두바이 원유가는 OPEC+ 감산이행에 따른 원유 공급 감소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석유 수요의 부분적 회복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6월 26일 기준 42.0불을 기록
- ▶ OPEC+의 감산이행 등 원유공급 감소는 유가 상승요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상승폭을 제한

□ 동향

- 국제유가는 5월부터 시작된 OPEC+ 감산과 저유가로 인한 미국 등의 원유공급 감소로 상승세 시현
 - 세계 석유수요는 전년 대비 감소하지만 미국 및 유럽에서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수요 하락폭은 종전 예상치보다 소폭 감소
 - * IEA에 따르면 금년 연평균 석유수요(6월 보고서 기준)는 전년 대비 810만b/d 감소하지만 전월 전망치보다는 감소폭이 축소(50만b/d)
 - * 단, 2021년의 석유수요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2019년 99.8백만b/d → 2021년 97.4백만b/d)
 - * IMF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고, 회복 속도도 더딜 것이라며 금년 성장률을 종전 4월 전망치보다 1.9%p 하향한 - 4.9%로 조정(6.24)
 - 코로나19에 대응한 조치(lockdown)가 완화되면서 주요국의 경제활동과 석유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향후 석유수요 회복 정도는 여전히 불확실함
 - * IHS 등은 중국의 4월 말 석유수요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의 90%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하반기에는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수요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 Wood Mackenzie는 중국의 하반기 석유수요가 수송 및 산업 부문에서의 수요 증가로 전년보다 2.3% 증가한 13.6백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전월 39.8에서 49.6으로 크게 높아졌고 서비스 부문의 PMI는 전월 37.5에서 46.7로 개선
 - * 미국 6월 4주차 원유정제처리량과 가동률이 각각 13.84백만b/d, 74.6%를 기록하면서 4월 3주차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중국의 5월 정제처리량은 13.63백만b/d로 전년 대비 8.2% 증가함.

* 그러나 남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6월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가 전월보다 증가하고 미국에서도 6월 26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4만 명 이상)가 종전 일일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짐(유럽 CDC 홈페이지; WP, 6.24; CNN, 6.27).

- OPEC+ 산유국들의 5월 원유 감산량은 8.6백만b/d(IEA, OMR 6월호)

- * OPEC+ 합의 상 감산규모는 금년 5~6월에는 9.7백만b/d, 하반기에는 7.8백만b/d, 2021년~2022년 4월까지 5.8백만b/d
- * 5월 감산량은 OPEC-10 5.2백만b/d(감산이행률 86%), 러시아 등 비OPEC 3.4백만b/d(감산이행률 94%)이며 OPEC+ 전체의 감산량은 8.6백만b/d(감산이행률 89%)
- * OPEC+는 생산한도를 초과한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에 대해 7~9월 중 추가감산을 통해 미진했던 감산량을 보충할 것을 요구함
- * OPEC+가 6월 6일 회의에서 5~6월에 적용했던 감산목표량을 7월까지 1개월 연장하여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7월 감산목표량은 연장을 거부한 멕시코의 감산분이 제외된 9.6백만b/d임(Reuters,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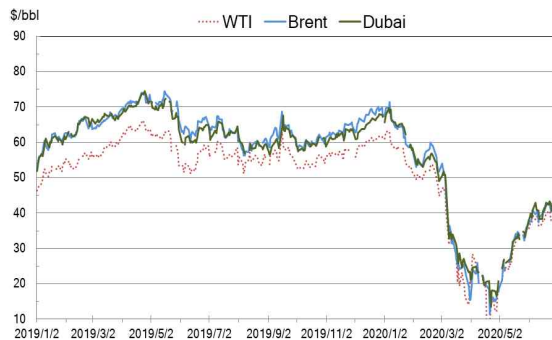
- 산유국들의 저유가에 따른 원유생산 축소도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 IHS는 2분기 시장요인으로 인한 1분기 대비 원유생산 감소량을 미국 및 캐나다 270만b/d, 남미 110만b/d, 유럽 30만b/d, 아시아 및 아프리카 70만b/d로 추정
- * EIA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생산은 전년 말 12.90백만b/d에서 6월 4주 11.0백만b/d로 감소하였고 금년 4분기 평균 10.74백만b/d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 미국 원유시추기 수는 6.26일 기준 188기로 '19년 12월 마지막 주 대비 484기 감소

【 국제 원유가격 추이 】

유종	`19		`20			
	1H	2H	1Q	2Q	5월	6월
두바이	65.5	62.0	50.7	30.37	30.47	40.74
Brent	66.1	63.0	50.6	29.48	29.60	40.05
WTI	57.4	56.8	45.7	27.58	28.56	38.19

주: '20년 6월 자료는 6월 26일 가격까지 포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 Reuters



□ 전 망

○ 국제유가는 3분기 중 배럴당 35불 내외, 4분기 38불 수준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및 석유수요 회복 속도에 따라 하반기 전망은 평균 최저 26불~최고 51불 등 큰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



세계 경제 및 환율

- ▶ IMF는 6월(비정기) 수정 전망에서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9%로 하향 조정
- ▶ 6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한 경제봉쇄 재개 가능성 등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1,200원대 초반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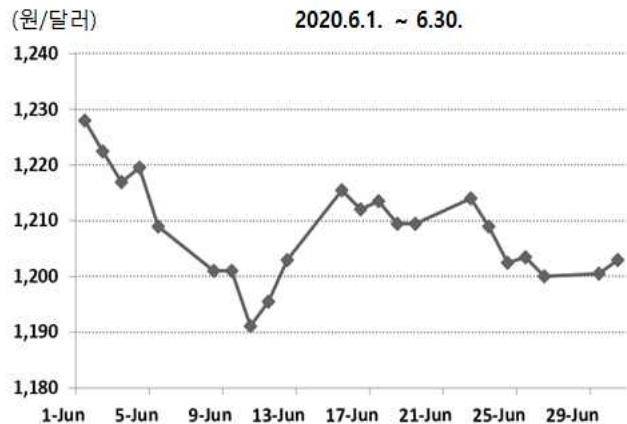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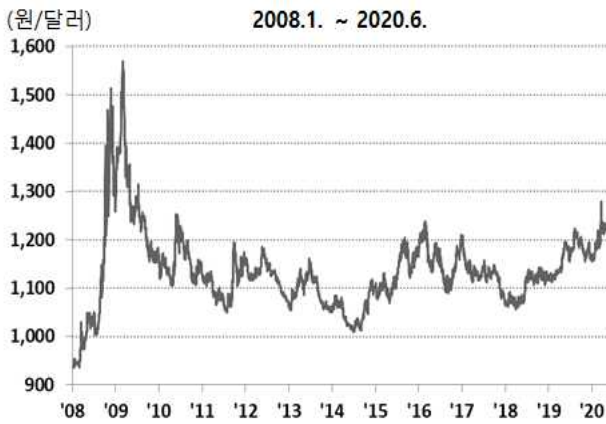
□ 동향

- IMF는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4월) 전망치에서 -1.9%p 하향조정된 -4.9%로 전망하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예상
 -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봉쇄(the Great Lockdown) 경기침체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라고 언급
 - 주요국이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4%로 급증 예상
- 6월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상대적 양호한 성장률 전망치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200원대 초반 유지
 -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미국 -8.0%, 유로존 -10.2% 등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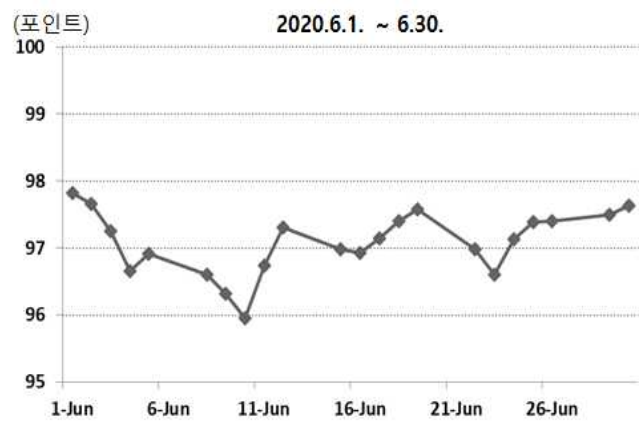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확산, 미-중 갈등 확대, 중-인도 갈등 확대의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
 - IMF는 2021년 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기본시나리오에서는 5.4%)
 - 홍콩 보안법을 통과에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수출 허가 예외 적용 등)를 박탈함
-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달러 공급이 풍부한 가운데, 인종차별 항의 시위 확산, 미-중 갈등 등 미국경제의 악화 요인이 확대되며 달러 강세의 정도 약화
 -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이 2020년 2월에 비해 약 3조달러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7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달러 공급이 풍부
 - 6월부터는 달러지수가 100포인트 하회 지속(달러 약세)

【 원/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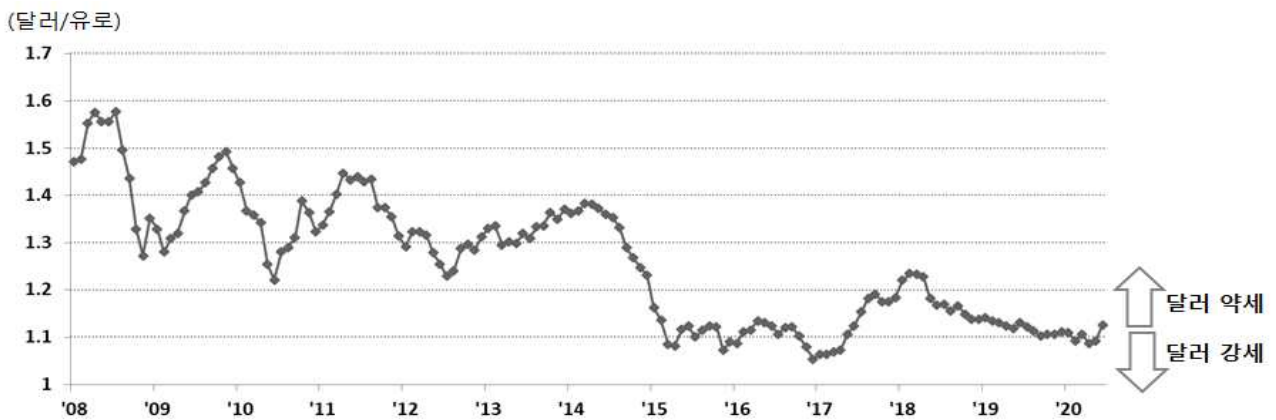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 달러화 지수 】



주 : 달러의 국제적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주요 통화의 거래 환율을 가중하여 계산한 지수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 달러/유로 】



주 : 월평균 자료 (2020년 6월은 29일까지)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요국 기상 동향

- ▶ 2020년 7~9월 정상일 확률이 51%,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47% 수준
- ▶ 2021년 봄까지 정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점차 감소 전망

□ 동향

○ 미국

- 5월 초순, 평년 이하 기온과 한파로 중서부 및 북동부의 과일, 겨울 밀, 여름작물 등 다양한 농산물을 위협
- 한편, 6.1일 대서양 철 이른 2개의 열대성 폭풍인 아서(Arthur)와 베르사(Bertha)가 발생하여 대서양 연안의 남부와 중부 일부 지역에서 폭우발생
- 미시시피 유역 북쪽에서 동쪽 콘 벨트까지 다습한 환경이 지속함
- 대조적으로, 다코타 북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습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콘벨트 서부까지 옥수수 파종이 빠르게 진행됨
- 남부에서는 고원지대 중부와 남부에서 가뭄의 범위가 서쪽으로 확대되고, 또 강도도 심각해지는 가운데 5월의 강우로 텍사스 남부에서 플로리다에 이르는 남단에서는 가뭄이 완화되거나 종식됨

○ 남미

- 5월 브라질 중부에서 내린 소나기로 옥수수와 면화 수확전망은 양호하게 유지되었지만, 가뭄으로 수확량이 부정적이던 대부분의 남부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늦어 부정적인 수확 전망을 바꾸지 못함
- 아르헨티나에서는 여름작물의 조기 수확과 겨울곡물의 파종이 순조로움

○ 유럽

- 5월 잦은 비로 동유럽에서 겨울 곡물을 결실에 좋은 환경이 유지
- 그러나 건조한 날씨가 헝가리와 주변 지역에 여전히 남아 밀과 유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프랑스와 독일의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소나기로 농작물 성장 환경이 개선됐지만, 영국에서 프랑스의 최북단 프랑스와 독일의 겨울 작물에 계속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베리아반도에서는 늦은 봄비로 겨울 밀과 보리의 숙성이 순조로워 수확 전망이 밝음

○ 러시아

- 5월에 평년보다 비가 많아 봄 가뭄이 해소되었고, 흑해 지역 전역의 겨울 밀, 보리와 유채 숙성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됨
- 따뜻한 봄에 이어 시원한 5월은 겨울철 작물 숙성에 매우 유리한 환경
- 강수도 적절하여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 성장에 좋은 환경이 조성

○ 중국

- 5월에는 양쯔강 유역 북쪽을 제외하고는 평년 강우량을 보여 아직 미성숙한 밀과 유채뿐만 아니라 여름 곡물 및 유지작물에 좋은 환경 유지
- 기온도 동부에서 서부 내륙까지 평년보다 높아 작물의 성장이 촉진
- 북한도 작년보다 모내기 환경이 양호하게 나타남

○ 호주

- 서부에서는 비교적 건조하게 농사가 시작한 후, 5월 말에 비가 내려 파종된 겨울 작물의 발아와 출현이 촉진되었고, 추가 파종이 장려됨
- 남동부에서는 5월 강우량이 4월보다 적었음에도 종종 내리는 소나기로 밀, 보리와 캐놀라 성장을 위한 적절한 수분 공급이 유지되어 초기 수확량 전망이 양호하게 나타남

□ 전 망

- ENSO 전망 : 2020년 7~9월 정상일 확률이 51%,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47%, 엘니뇨 발생확률은 2%. 2021년 봄까지 정상상태가 유지될 것이나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

○ 기온과 강수 전망

- 미국 : 2020년 7월에서 9월까지 기온은 대부분 평년 수준이나 북서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정도의 비가 오리라 예상되나, 북서부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
- 남미 : 브라질 남부와 아르헨티나 북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이나 브라질 북부와 동부, 아르헨티나 중남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 정도로 예상되며 아마존 유역 북쪽에서는 평년 정도의 비가 오리라 예상되나, 브라질 아마존강 남쪽 유역과 아르헨티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건조할 것으로 전망
- 유럽 : 남부 유럽·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대부분 동유럽 지역에서 기온이 높고 영국, 이베리아반도에서는 평년보다 건조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수준으로 전망
- 중국 : 북부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으나, 남부는 평년 정도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호주 :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정도나, 북부에서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많으며, 특히 남동부에서는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

참고1

세계 주요 곡물 생산량 및 생산 전망(USDA '20.6)

(단위 : 백만 톤)

구	분	2018/19	2019/20 (추정, A)	2020/21(전망)		대비(%)	
				5월(B)	6월(C)	전년(C/A)	전월(C/B)
곡 물 전 체	생산량	2,624.29	2,665.22	2,751.89	2,760.13	3.6	0.3
	공급량	3,443.26	3,469.23	3,573.24	3,580.95	3.2	0.2
	소비량	2,639.25	2,648.41	2,705.50	2,708.42	2.3	0.1
	교역량	429.39	431.39	450.74	451.38	4.6	0.1
	기말재고량	804.01	820.82	867.74	872.53	6.3	0.6
	기말재고율(%)	30.5%	31.0%	32.1%	32.2%	1.2%p	0.1%p
쌀	생산량	496.46	494.29	501.96	502.09	1.6	-
	공급량	660.56	671.08	682.31	683.34	1.8	0.2
	소비량	483.77	489.83	498.12	497.99	1.7	-
	교역량	43.71	41.65	45.22	44.90	7.8	-0.7
	기말재고량	176.79	181.26	184.18	185.35	2.3	0.6
	기말재고율(%)	36.5%	37.0%	37.0%	37.2%	0.2%p	0.2%p
밀	생산량	730.84	764.41	768.49	773.43	1.2	0.6
	공급량	1,014.93	1,044.24	1,063.61	1,069.28	2.4	0.5
	소비량	735.10	748.40	753.49	753.19	0.6	-
	교역량	173.56	185.82	187.98	188.85	1.6	0.5
	기말재고량	279.84	295.84	310.12	316.09	6.8	1.9
	기말재고율(%)	38.1%	39.5%	41.2%	42.0%	2.4%p	0.8%p
옥 수 수	생산량	1,123.34	1,113.50	1,186.86	1,188.48	6.7	0.1
	공급량	1,464.62	1,433.63	1,501.58	1,501.38	4.7	-
	소비량	1,144.49	1,120.72	1,161.96	1,163.51	3.8	0.1
	교역량	181.18	169.49	182.25	182.50	7.7	0.1
	기말재고량	320.13	312.91	339.62	337.87	8.0	-0.5
	기말재고율(%)	28.0%	27.9%	29.2%	29.0%	1.1%p	-0.2%p
대 두	생산량	360.26	335.35	362.76	362.85	8.2	-
	공급량	458.86	447.87	463.03	462.04	3.2	-0.2
	소비량	342.65	348.35	360.73	361.74	3.8	0.3
	교역량	148.30	155.54	161.93	161.98	4.1	-
	기말재고량	112.52	99.19	98.39	96.34	-2.9	-2.1
	기말재고율(%)	32.8%	28.5%	27.3%	26.6%	-1.9%p	-0.7%p

*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20.6)

* 공급량 = 기초재고량 + 생산량 / 기말재고율(%) = 기말재고량/소비량

참고2

국제곡물가격 동향 (USDA 고시 가격)

(단위 : US\$/톤)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대두	'09	365	341	332	374	419	445	388	392	342	355	372	379	375
	'10	361	345	350	358	351	349	367	376	391	427	462	484	385
	'11	513	512	500	501	499	500	500	501	492	446	430	420	485
	'12	443	462	497	529	521	522	602	618	616	566	532	535	537
	'13	521	536	531	518	529	560	527	478	494	473	475	489	511
	'14	472	497	522	547	544	528	450	405	357	354	379	379	453
	'15	368	365	360	357	350	355	371	341	322	327	318	323	346
	'16	321	320	328	354	390	421	389	368	353	358	370	375	362
	'17	381	381	368	348	352	340	366	346	355	358	363	357	360
	'18	358	371	380	378	376	340	313	317	308	316	324	330	343
	'19	336	335	331	324	307	327	326	315	326	340	335	335	328
'20	339	325	320	310	310	319							321	
밀	'09	226	209	211	211	235	233	205	190	176	186	198	197	206
	'10	193	183	181	181	184	176	215	260	274	268	271	305	224
	'11	324	343	315	336	333	301	278	299	290	262	253	246	298
	'12	253	255	254	238	241	248	320	325	336	330	331	318	287
	'13	302	285	275	273	278	265	257	258	258	278	260	246	270
	'14	231	246	276	276	289	264	236	230	217	217	219	238	245
	'15	213	201	201	194	191	195	200	176	179	181	172	175	190
	'16	172	166	174	171	166	165	152	149	153	152	151	151	160
	'17	161	166	164	154	162	169	189	157	164	158	155	155	163
	'18	161	174	185	183	198	186	186	200	191	188	178	186	185
	'19	185	175	161	154	155	170	162	146	148	153	157	166	161
'20	178	171	169	176	170	163							171	
옥수수	'09	154	142	150	152	166	162	129	129	128	146	154	158	148
	'10	152	143	145	139	145	137	149	161	193	215	217	233	169
	'11	250	272	270	296	285	284	263	281	273	249	247	239	267
	'12	248	252	255	250	237	237	299	316	301	295	291	284	272
	'13	281	278	282	255	256	261	208	190	181	173	167	169	225
	'14	168	176	191	198	193	176	149	141	133	138	147	158	164
	'15	153	151	152	147	143	143	161	145	149	151	144	146	149
	'16	142	143	143	147	154	161	136	127	131	138	136	139	141
	'17	142	145	144	143	146	147	150	139	139	138	135	138	142
	'18	139	144	151	152	158	144	139	141	141	145	144	150	146
	'19	149	147	146	141	151	171	169	148	145	153	147	151	152
'20	152	149	141	126	126	129							137	

* 자료 : USDA ERS Season-Average Price Forecasts('20.6.11) 대두, 밀(HRW), 옥수수 선물거래가

참고3**해상운임 동향**

(단위 : US\$/톤, %)

구 분	6월 18일 기준A)	전월평균(B)	전년동월(C)	가격변동률(%)	
				A/B	A/C
PNW(미국 서해안)	19	18	24	106	79
GULF(미국 걸프)	36	35	43	103	84

* PANAMAX급(Bulk) 기준

- 본 자료는 매월 발표되는 미 농무성(USDA) 수급보고서 및 “국제곡물정보분석협의회” 전문위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 『국제곡물정보분석협의회』 분야별 전문위원

국제 원자재 시장 : 국제금융센터 오정석 팀장/ 국제 석유 시장 :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철근 연구위원/
 세계 경제 및 환율 :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김화년 교수/ 주요국 기상 동향 : 부경대 환경
 대기과학과 오재호 교수/ 선물가격 동향 : 하나금융투자 배정석 이사/ 수출가격 동향 :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김치영 전무이사 / 자문 :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윤병삼 교수